사랑하는 신혼부부의 자매님께,

우리 회장단은 삶에서 배운 훌륭한 메시지를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매님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휴전, *토마스 에스 몬슨의 가르침*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배우자입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제가 감독으로 있던 와드에는 매우 심각한 불화로 갈등이 극에 달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불화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믿었으며,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불안한 휴전"이라고 부르던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경에 저는 그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대화하고 싶다면서, 그것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저만치 등을 돌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통해 남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통해 아내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부부를 화합하게 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감을 얻으려 기도했고, 부부에게 질문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인봉을 직접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사람은 꽤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의식 봉사를 하는, 다른 면에서는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 여덟 시에 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인봉 의식을 한 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그날 누가 의식을 받나요?"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그날 아침에 의식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름다운 인봉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총관리 역원으로, 십이사도 보조이셨던 엘레이 엘 크리스텐슨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그날 아침에 인봉실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인봉 의식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와 그 가족은 우리를 "신랑 쪽 친구일 거야."라고, 또 신랑 가족은 "신부 쪽 친구일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참석한 부부는 작은 의자에 약 60센티미터 정도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는 권고 말씀을 전하시며 의식을 시작하셨는데, 정

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가정의 중심으로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에게는 어떻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고 모든 면에서 남편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이 신랑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 부부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두 사람은 바로 옆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서로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그 부부는 신혼부부처럼 꼭 붙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온 그 친구들은 손을 맞잡은 채로 정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점들은 이제 더는 문제되지 않았으며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을 한 그날과 하나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되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삶에서 많은 날들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의 삶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불편한 휴전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친구와 행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자매 여러분, 자매님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자매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자매님의 이름에는 조부와 부모님의 사랑이, 수 많은 친구들, 교회 회원들의 사랑이 묻어있습니다.
자매님의 이름은 소중합니다.
자매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자매님의 삶을 사십시오.

누구의 아내도, 자녀의 엄마도 아닌, 자매님의 고유한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성약의 질서 안에서 멋지게 사십시오.
자매님의 이름을 응원합니다. 그 소중한 이름이 펼친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진실한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단

박 진 수 | 최 일 광 | 김 진 식

1보좌 박 진 수 | 회 장 최 일 광 | 2보좌 김 진 식